화엄일심은 분단 극복의 사상적 출발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분열시대 화엄학' 학술세미나서

이찬훈 교수

고영섭 교수

급격히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화,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갈등에 대해 불교의 화엄사상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11월 29일 개최한 '분열시대 화엄학'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국면과 사회문제에 대한 화엄사상적 대안이 제기됐다.

화신불 개념 하에 무한경쟁 극복

먼저 이찬훈 인제대 교수는 세계화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해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며 공감과 연대의 정신이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폐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화신불 개념하에서는 중생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보시, 지계, 인욕이라는 보살의 바라밀행이 나오게 된다. 이는 경쟁이 아닌 공감과 동정, 그리고 자비심에 기초한 공생과 상생을 추구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 더 많이 차지하는 무한경쟁의 달리기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일부 강대국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화엄사상 속의 모든 생명과 존재가 모두 우주를 담고 있는 평등정신으로 세계화 상황에서 지친사람을 토닥여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일심 경지 하에 남북분단 해결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불성의 원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화엄일심의 경지에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 남남갈등 문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 교수는 "원효와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은 삼국 분단과 분열시대를 치유한 통일과 통합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유식의 일심과 여래장의 진망화합심을 아우르는 화엄일심은 무분별의 경지로 남북분단시대를 극복하는 사상적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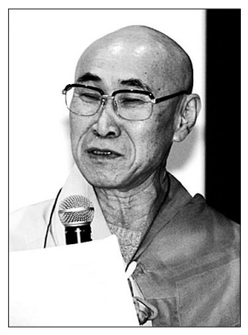
고 교수는 이어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통합의 이념과 소통의 장치가 요청된다"며 △시간적 지연과 공간 차이 인정 △서로간 배려 △진정한 대화 시도 △소통 △행복과 건강한 삶의 화엄일심의 통찰 과정을 설명했다.

고영섭 교수는 끝으로 "화엄의 '문없는 문'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배움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듯, 통일시대에는 분단시대의 우리들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화엄일심을 이끄는 인식의 전환으로 분열의 장벽을 극복하는 통일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uddha'는 學者일까 붓다일까? 불전 번역 기준 정립 시급

정우 스님, 티벳대장경역경원 주최 추계학술세미나서 주장



'buddha' – 각자 · 불타 · 붓다
'bodhi' – 보리 · 깨달음

"그동안의 불교용어 표준화 기준은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원전어 표기 기준시 혼란이 야기되기에 새로운 기준인 한글번역 표준용어를 선정해야 한다."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이 11월 28~29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세계 각국의 대장경 역경' 학술대회에서는 대장경 역경의 제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한글번역에 있어 새로운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정우 스님은 "2004년 한국불교학회에서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을 진행해 그해 10월 표준안을 제출했다. 이 표준안 중 원전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하고, 한국어용어는 한글번역 용어보다 한자어를 한글 음으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글 표준어 방식에서 'buddha'는 한자어 '각자(覺者)'와 한글 '각자'로 표기한 다고 했지만, 이는 한자어 '불타(佛陀)', 한글번역어 '붓다'로 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 스님은 이어 "다른 예시로 한자어 도(道), 한글 깨침으로 표기되는 'bodhi'가 한글음사어 보리, 깨달음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 등이 많아 표준화 방안으로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교용어 표준화 기준 설정에는 현실을 고려해 다시금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이어 한글번역 방법의 설정에서도 의역이나 번역자의 의견이 개입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구인 언어는 직역, 서술어는 의역을 하되, 직역이 되는 명구는 따로이 기준을 정하며, 의역 부분도 문장 표현방식에 통일을 기하는 기준안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가에서 명안종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전하는 불전을 선택하는데는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불전을 바르게 선택하려면 정확성을 기한 번역본이 나와야 한다"며 불교학계가 새 기준안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달라이라마의 티벳 대장경 번역 성만을 당부하는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달라이라마는 세미나에서 "티벳의 경장과 논장은 몇 세대에 걸쳐서 번역한 것으로 대승불교의 보고인 이 대장경이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 번역되는 것은 큰 의미"라며 "수백년이 걸려 티벳어로 만든 이 대장경을 한국의 높은 번역 기술로는 15년이면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은 언제나 다가와, 자비행이 곧 깨달음"

밝은사람들硏,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연찬회 성료

선,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깨달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29일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학술연찬회를 열고 다양한 시대와 사상에서 바라보는 깨달음에 대해 고찰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궁극의 지점으로 바라보지만,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날 연찬회가 열린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에는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500여 대중들로 가득 찼다.

연찬회에 참석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선불교로 인해 인류는 무지(無知)에서 벗어나는 방편을 얻었다"며 모인 대중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해보도록 권했다.

이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초기경전을 토대로 깨달음의 의미를 정리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은 '진리나 사실을 알게 되는 지혜를 성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초기불교의 깨달음은 궁극이 아니라 궁극을 포함한 과정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중국 선법에 이르러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는 완성된 존재라는 주장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을 심층 해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깨달음은 '끝없는 자기개발'이다. 깨달음의 본 모습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곁에서 주장되는 자기혁명이나 정치개혁, 사상개혁 하는 것은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강조하며 "밖에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이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활발하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는 깨달음의 일상 구현을 위해서는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이 해답이라는 입장이 모아졌다.

김호귀 교수는 "깨달음은 어디에나 열려 있고 완성돼 있기에 깨달음을 겨냥한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자비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속에서 본 원효'

11월 29일 불교문화연구원 · 불교학연구회 공동 개최

원효 스님의 사상을 불교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적 맥락에서 본 원효'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경아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불교논리학'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유식사상'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화엄사상'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원효사상과 천태사상의 비교'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원효사상 속의 아비달마사상'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문화硏, 제5차 학술발표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센터에서 제5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불교문예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사 스님의 '불상점안의 절차와 사상' △손인애 서울대 교수의 '경제(京制) 각배 걸수(乞水) 연구 발표' △김춘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원의 '일본조동종의 일상 의례' △이경준 동국대 박사의 '관음시식과 몽산시식의 구조 비교' 등이 발표된다.

12월 13일 템플스테이센터에서 토론자로는 조계종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감 정오 스님, 의례연구소장 명조 스님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원효와 유교사상가' 세미나

12월 13일, 동국대 다향관서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유교사상가의 만남'을 주제로 제9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유진 동국대 외래교수의 '분황 원효와 회암 주희' △최재목 영남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양명 왕수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퇴계 이황' △김경호 호남학연구원HK교수의 '분황 원효와 율곡 이이' △방인 경북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다산 정약용' 등이 발표된다. (02)2260-3583

노덕현 기자

미국동양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육임술 제2기를
12월 1일(월요일) 저녁 6시에
개강합니다.

■ 강사진 :
김영배 AOU총장(한국육임학회 총재)
이내각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초빙교수 (한국육임학회 회장)
신성빈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교수 (한국육임학회 경기북부지회장/AOU 평생교육원장)

●육임귀신술 동영상 핵심 24회 수강가능
●육임사주술 동영상 핵심 5회 수강가능

미국동양학대학교
www.aou.ac
총장 김영배 (효사)
☎02)738-8680

사자암 법보시

내가있고 너가있고
내가없고 너가없고
공존공생 도의진리

신 도덕경을 법보시 하오니 원하시는 인연님은
다음카페「사자산 사자암 법보시」란에
책 받을 주소 / 성명 / 폰번호 / 입력하시면
우체국 택배로 무보시 합니다!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사 자 암 석 장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